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체제 개편

12월1일 화학계열 대규모 임원인사 단행 ... 내부 통합에 분리경영 강화

금호석유화학은 12월1일 박찬구 회장이 복귀한 이후 첫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금호석유화학 등 화학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화학 계열사 내부 통합과 분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의 전무로 승진한 석대식 관리본부장과 한동화 기획본부장은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과 함께 퇴임했으나 2010년 3월 박찬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회사로 돌아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2009년 임원 급여가 30% 삭감되는 등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2010년 영업실적이 좋아 보상 차원에서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단행됐다”며 “박찬구 회장과 뜻을 함께 한 임원이 요직에 기용됐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전무 승진 ▲관리본부장 석대식 ▲기획본부장 한동화 ▲영업본부장 임성규 ▲중앙연구소장 김승수 상무 ▲건자재담당 지성해 ▲기술담당 박주완 ▲고무연구담당 고영훈 □상무보 승진 ▲정밀화학공장장 겸 에너지담당 정진욱 ▲수지영업담당 김동국 ▲관리담당 고영도 ▲고무영업담당 김성일 ▲울산고무공장장 서동주 ▲여수고무공장장 장갑중 □전무 전보 ▲생산본부장 송석근 ◇금호P&B화학 □상무 승진 ▲여수공장장 정영호 □전무 전보 ▲관리/재무담당 문동준 ◇금호미쓰이화학 □상무 전보 ▲관리담당 최성배 ◇금호폴리켄 □상무보 승진 ▲영업담당 서한종 □상무보 전보 ▲여수공장장 김규환

<화학저널 2010/12/01>